



16년째 '김장대장정' 펼치는  
이봉건·강성현 부부



**며**느리, 시어머니 할 것 없이 배추더미에 며칠을 절여 지 내던 김장 풍경은 이제 옛날 일. 며느리는 어떤 상표의 김치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어머니 역시 배추 20포기로 한 겨울 김치걱정을 물어버리는 것이 요즘 김장철의 풍경이다.

이 같은 '김장 간소화' 바람을 무색하게 하는 한 부부. 87년, 50포기에서 시작한 김장규모가 올해 1만 4천포기를 넘어섰다는 이봉건(59·환경미화원-강성현(51·보험설계사). 이들은 16년전부터 매년 배추와 양념 등을 손수 마련해 대규모 김장을 '감행'하고 있다. 몸은 고달프고 돈도 쏟아부어야 할 형편이지만 올해도 11월 10일 어김없이 '김장 대장정'에 나섰다. 어떤 인연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발이 는 일일까. 11월 14일 첫걸 내음이 시큰한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그들의 숨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80년대 말 즈음일 거예요. 어머니를 사고로 잃고 힘들어하는 옆집 가족을 위해 5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대신 담궈 드렸지요. 그때만 해도 구로시장에서 '리아카 커피'를 팔고 다닐 때라 그리 낙담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옆집 아저씨를 보니 환희심이 나타났어요."

아내 강 씨의 김장보시는 그렇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주위의 불우이웃을 위해 남편 물레 100포기, 200포기를 추가로 담근 것이 전부였다. 커피 장사를 위해 아이들도 친정에 맡기는 형편이었지만 강 씨의 김장보시 욕심(?)은 매년 커져만 갔다. 100포기만 더, 200포기만 더 하던 것이 어느새 1000포기를 넘어섰고 지금은 1만 4천포기에 이르게 됐다. 2002년부터는 구로구청과 영등포구청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14년 동안은 친지들 몇몇에 의지한 외로운 김장보시였다. 그렇게 담근 김치는 구로구와 영등포 일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의 겨울 양식이 됐다.

그러나 해마다 거듭되는 김장보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늘어가는 김장 비용은 환경미화원-보험설계사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를 위해 남편 이 씨는 90년부터 환경미화원의 박봉을 쪼개 매월 10만원씩 적금을 들었다. 이 씨가 그렇게 모으던 금액은 조금씩 늘어 지난해에는 월 100만원으로 커졌다. 즐기던 술·담배를 끊고 용돈을 아꼈던 것. 아내 역시 커피 장사와 보험설계 등의 일을 하며 남편과 똑 같은 돈을 보냈다. 도합 200만원에 달하는 김장 비용이 매월 적립됐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김장보사에 쏟아부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랐다. 지난해에는 총비용 2,800만원을 충당하지 못해 8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그래도 비용 문제

는 견딜만 했다. 몸이 고된 것도 참을 수 있었다. 신경통 재발로 병원을 들락거려도, 배추를 운반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수개월을 몸져누워도 불평 한 마디 없었던 이들 부부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실망은 어쩔 수 없었다.

"매년 김장철이 되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전화거신 분들이 말씀은 한결같아요. 적금타면 보시한다는 얘기부터 첫걸이니 배추너도올 수 있는 만큼 돕겠다는 약속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늘 공염불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이어온 일은 아니기에 보시를 기대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지만, 그 같은 발심이 보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이러한 보시 객(?)들과는 달리 이들 부부의 초발심은 십 수 년

50포기로 시작 올해 1만 4천 포기  
매월 저축·대출 받아 비용 마련  
봄부터 양념·젓갈 등 재료 구입  
"고마워 하는 이 보면 환희심 생겨"

김장속에  
버무려진 **사랑**

째 사그러질 줄을 모른다. 오히려 김치에 어머니의 손맛과 정성을 담고자 하는 마음은 더 깊어졌다. 이들은 마음을 수확하는 6월이면 산지를 돌면서 양질의 마늘을 사들이고 8-9월에는 햇벌을 뚝뚝 받은 태양초 고추를 구입한다. 또한 2-3월에는 갈치젓갈을, 5월에는 새우젓을 직접 담가 양념을 준비한다. 모든 반찬이 그렇듯이 정성과 품질 좋은 토종재료가 아니면 최상의 맛을 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조금 가마니가 산을 이루고 고추 포대 매운내가 진동을 하는 집에서도 늘상 김장 생각뿐이다. 이들에게 있어 김장보시는 연중행사가 아니라 일년 내내 진행되는 '대장정'인 셈이다.

이들 부부는 몇 해 전부터 해명보육원 등지에 떡도 전달하기 시작했다. 김치와 떡 속에 담은 마음이 천리, 만리를 날아 어려운 이웃에 작은 힘이어나길 수 있다면 그저 그만이라는 부부. 오늘도 대림동 한 칸에서는 배추 속에 버무린 한 자락 정성이 피어오른다. 보살의 향훈도 함께 피어오른다.

글=강신재 기자 thaiswh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대림동 자택 앞 골목에서 자원봉사자들과 김치버무리기에 나선 강성현·이봉건 부부.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선회법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껏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 [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입재 : 2003년 11월 2일 ○회향 : 2006년 8월 27일

동지기도안내

○ 오는 12월 20일 부터 12월 22일까지 동지삼일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그리고 동지기도에 즈음하여 한국불교 1700년 역사상 최초로 우리말사언절로 암막한 동종스님의 42번째 책 <<예수재의>> <<일원국>> <<제7권>>를 동참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법보시합니다. 오는 2004년도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봉행되는 예수재 의식집으로서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